



보이밴드 데이식스의 멤버 영케이가 데뷔 6년 만에 첫 솔로앨범 '이터널'을 6일 발표했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 데이식스 영케이 홀로서기 첫 솔로앨범 '이터널' 발표

“내 손과 마음이 많이 가는 곡들로 담았다”

밴드, 유닛, 이번엔 솔로로...  
 보이밴드 데이식스(DAY6)의 영케이(강영현)가 ‘팔방미인’으로서 존재를 알리는 신고식을 치렀다. 2015년 데뷔해 팀 히트곡을 주로 쓰며 싱어송라이터의 역량을 드러내왔던 그가 6일 오후 첫 솔로 미니앨범 ‘이터널’(Eternal)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섰다.  
 영케이는 4월 데이식스 완전체, 7월 유닛인 이븐 오브 데이, 이번 솔로까지 올해 유난히 숨 가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뛰어난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 덕분이다. 솔로 앨범에 수록한 7곡 역시 영케이가 모두 작사·작곡했다.  
 영케이는 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올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자는 생각”이라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작업 과정에서 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미니 앨범에는 제 손과 마음이 많이 가는 곡들로 주로 담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솔로 앨범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크지만, 듣는 사람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케이는 솔로 활동을 마친 뒤 다음달 12일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입대한다. 아이돌 최초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그는 “아버지가 카투사에 복무했고, 주변에서도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됐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긴 머리카락 싹둑... “센 캐릭터 기대하세요”

“스카이캐슬과 비교? 차별점 뚜렷 여성 시청자라면 더 재밌게 볼 것”

배우 조여정(40)은 연기를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긴 공백을 가진 적이 없다. 2019년 주연 영화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같은 해 KBS 2TV ‘99억의 여자’를 비롯해 올해 1월 마친 ‘바람피면 죽는다’, 6일 방송을 시작한 tvN 새 월화 드라마 ‘하이클래스’ 등 작품을 쉬지 않고 내놨다. 그렇게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가 33편에 달한다.  
 지칠 법도 하지만, 조여정은 “쉬지 않고 작품에 출연하니 연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보람 있다”며 웃는다. 도전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번에 받아들인 속제는 ‘센캐’(센 캐릭터)이다. 극중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김지수가 “치열하게 싸우는 듯 보이지만, 나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할 정도”라며 혀를 내두를 만큼 ‘센대’.

### ● “머리카락도 과감하게 싹둑”

조여정은 남편의 살인범으로 몰린 변호사 송여울로, 아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드라마가 학부모들의 잔인한 ‘편 가르기’를 통해 상류층의 민낯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JTBC ‘스카이 캐슬’ 등과 비교하는 시선에 그는 “차별점이 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엄마이자 여자인 캐릭터들의 복잡한 감정이 잘 그려져 안스럽기까지 해요. 다른 드라마 속 변호사나 상류층 엄마들과

도 사뭇 다르게 다가오고요. 극중 굵직한 사건을 담담하게 풀어나 독특해요. 그런 부분을 돋보이게 하려고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연기했는데, 그게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강인하고 다부진 캐릭터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 8살 아들로 출연하는 아역 장선율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공을 들였다.

“머릿속에 뭉뚱뚱 송여울의 모습을 만드는데 짧은 헤어스타일이 ‘딱’이었어요. 전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라 만족스러워요. 한 번쯤은 작품을 위해 이런 파격적인 변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하하! 선율이와는 촬영을 마치고도 한 시도 안 떨어지고 함께 있었죠. 아이가 워낙 사랑스러운 덕분에 ‘케미’가 잘 담겨 걱정 하나 덜었네요.”

조여정에게는 ‘하이클래스’가 명예회복을 할 기회이기도 하다. 직전 ‘바람피면 죽는다’가 4%대(닐슨코리아) 시청률에 머물러 아쉬움이 크다. 이번에는 입시 문제, 치정, 미스터리 등 최근 방송가에서 인기 있는 요소를 한데 녹인 이야기로 “시청자 공감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높은 울타리를 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지키려는 욕망을 다큐멘터리만큼 생생하게” 따라간다.

“제가 출연한 드라마라지만, 저도 때때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여성 시청자라면 정말 재미있게 보겠는데’ 싶고요. 여러모로 답답한 시기인데 소소한 재미거리는 분명히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조여정이 6일 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의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 ‘행복의 나라로’ 윤여정, 속물 캐릭터는 어떻게

임상수 연출... 최민식·박해일 주연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공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이 10월 신작으로 돌아온다.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준 영화 ‘미나리’ 이후 첫 작품이다. 자신을 스크린으로 다시 불러낸 연출자와 손잡은 새로운 무대라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윤여정은 10월6일 막을 올리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출연작 ‘행복의 나라로’를 개막작으로 선보인다. 임상수 감독이 연출하고, 최민식과 박해일이 주연한 영화는 우연히 만난 두 남자가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은 뒤 마지막 행복을 찾아 함께 길에 나서는 이야기이다. 극중 속물근성 가득한 윤여정은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열쇠를 쥐뚝한 캐릭터로 관객 앞에 나선다.

특히 이번 영화는 1985년 ‘에미’ 이후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스크린으로 2003년 자신을 호출해낸 임상수 감독과 다시 한번 호



행복의 나라로

흡을 맞춘 작품이다. 윤여정은 임 감독의 2003년 연출작 ‘바람난 가족’으로 스크린 속 강렬한 이미지를 되찾았다. 이후 임 감독의 2010년작 ‘하녀’와 2012년 ‘돈의 맛’의 주연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다.

도 윤여정은 ‘행복의 나라로’의 주연 최민식·박해일과 전작에서 극중 모자지간의 인연을 맺기도 했다. 최민식과는 2004년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박해일과는 2013년 ‘고령화가족’에서 각각 어머니와 아들 역할로 호흡을 맞췄다.

‘행복의 나라로’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10월6일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최민식·박해일 등과 함께 윤여정도 부산으로 향할지 관심을 모은다. 6일 부산국제영화제 한 관계자는 “현재 개막작의 주연 배우와 감독 등 관계자들과 일정 등에 관해 협의 중이다”고만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업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이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